

세계관, 그러니까 삶이에요

☞ 인터뷰어 김승욱 (중양대 교수, 발행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부이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김의원 백석대 부총장이 지난 6월 9일에 은퇴식을 가졌다. 본지 발행인 김승욱 교수와 은퇴후의 사역과 세계관 운동에 대해 나누었다.



김의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수료한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구약신학 석사(Th.M.)를, 뉴욕대학에서 고대 근동어과 히브리어 전공(현 히브리어와 유대학과) 철학박사(Ph.D.)를 취득하였다. 이후 뉴욕중부교회를 설립 및 담임하였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제2대 총장으로 섬겼으며,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이자 구약교수로 섬겼다.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이자 새생명교육공익재단 이사장, 동탄사랑나눔재단 이사장, 한미문화협회 이사장,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 대학원장이다.

김승욱 : 지난 6월 9일 퇴임식을 가지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축사에, 퇴임하면 더 바빠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의원 : 오늘 아태아대학원 원장에 취임했어요. '아태아(ATEA)'는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 Nations의 약자로, 대학원은 아태아 국제학 대학원(AT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AIIS)입니다. 초교파로 저처럼 은퇴한 교수나 목회자들이 신학을 교육하고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선교지는 두 개의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학위가 선교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과 사역자들 위주로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양성과 교회개혁에만 집중하여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해 교회 자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당은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없고, 학교 건물은 세워졌는데 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태아는 작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더불어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신학교, 직업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러한 선교전략은 세계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면 신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예가 한국 교회입니다. 성경적 개념이 유교의 가부장적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많은 유익한 제도들이 가부장 제도와 함께 무너져버렸지요. 선교지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TEA/AIIS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MOU를 체결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김승욱 :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시절부터 지금의 세계관 동역회까지 오랫동안 동역하셨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 소장으로 계시다가 기학연 이사장도 하셨지요. 퇴임식에서 서천교회 김경원 목사님이 교수님은 구약학자인데 마치 실천신학자 같다고 하셨지요? (웃음) 이번 은퇴기념 논문집 제목('언약과 교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학자인 시면서 실천신학적 세계관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의원 : 저는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Harvie Conn(한국명: 간하배, 한국에서 12년 간 선교하면서 총신대 교수 역임) 교수로부터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창조명령과 마태복음 28장의 위임명령을 연결하여 "언약명령"을 주창하였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복음의 작은 씨앗으로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다윗의 국가 공동체로 성장하였고,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족, 민족, 국가와 교회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적용이 사라지고, 말씀을 배우는 예배 공동체와 이를 적용하는 삶의 공동체가 구분되면서 성속이 분리된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되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신학을 변형시킬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혁을 겪었습니다. 한번은 미국의 목양 현장에서 강권적으로 성공공부 그룹을 바꾸게 하셨는데, 신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꽃피워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교인들의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의 삶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 사업, 학교, 사회에서의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 안식년에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신학교를 방문하여 몇 분의 교수들께 양해를 구하고 강좌를 들으면서, 성경적 패러다임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은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강의는 완전히 성경 중심인데 초점은 현장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강해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세상에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론 중심이었는데, 그곳은 성경을 기초로 세상을 보게 하더군요. 귀국 후 구약의 이론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언약신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실천신학적 구약학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승욱: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던 30년 전에 비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제주도에 열방대학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합신대에서는 송인규 교수, 이승구 교수 등이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최근 고신대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흥장으로 계셨던 백석대에도 세계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니다. 총장으로 계셨던 총신대 신대원에도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만드셨는데, 요즘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의원: 총신대학교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무처장을 맡으면서 세계관을 필수과목에 넣고 제안했더니 세계관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철학보다 포괄적 의미로, 일종의 패러다임이자 렌즈라고 답하였습니다. 렌즈가 잘못되면 성경 이해가 잘못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세계관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석대학교에도 세계관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려 했는데 약간의 반대가 있어서, 신학대학원 입시에 세계관에 관련된 책들을 미리 읽게 한 뒤 논술시험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신학을 배우기 전에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학자들 중심으로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관은 어렵다는 편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대 변화도 한 몫 하였습니다. 논리성이 강하던 모더니즘시대에서 감성이 강화된 포스트모던시대로 바뀌었는데도, 그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계관을 감성적 부분에서 접근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 동안 개설되는 수많은 청소년 캠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 캠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통해 세계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세계관은 인식 과정의 필터 내지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세계관에 근거한 지·정·의의 구성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이런 사역에 능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본문, 내용이라도 교수들보다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보다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훨씬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운동도 교수들이 주도하다보니 이론적이고, 학구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관 운동을 3박 4

일, 4박 5일의 과정으로 만들고, 지·정·의가 함께 엮여지는 운동을 펼침으로 학생들을 위한 캠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교수들의 눈높이는 항상 제대로 교육받은 소수에게 한정되는 약점을 지닙니다. 이것은 신학교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 세계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대상에 맞춘 세계관 강의를 있어야 품성의 변화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관이 어떤 외곽을 감싸는 큰 틀로 주어지고, 감성에 기초된 영상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세계관 운동도 강의실 중심에서 초급과정의 경우 캠프 과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강의도 일방적인 것보다는 주제를 놓고 세미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성문제, 대학생들의 진로문제, 청년들의 사회문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도 세계관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가르치면 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강의가 아닌 삶에서 일어납니다. 신학교 교리와 삶이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김승욱: 요즘 한국교회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요?

김의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자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과 삶이 함께 있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2~3세기까지 유지되다가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당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이원화되기 시작하죠.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초대교회도 말씀과 삶이 병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 6.25를 거치면서 성도들의 성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값싼 은혜가 강조되면서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들어옵니다. 삶과 신앙이 별개로 여겨지고, 복음이 치유나 부귀를 위한 방편으로 변형되면서 성숙의 이원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교회 성장주의가 들어오면서 삶보다는 세속적 가치 기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젊은 사역자들이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며 이를 실행하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서서히 성장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 교회는 교인을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교회를 쇼핑하게 만듭니다. 좀 더 나은 시설, 프로그램을 좇다가 믿음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로 남게 되며, 섬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Editor's Comment

고대 근동어를 전공했지만 실천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사건(1)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 담임하게 하셔서 목회 현장을 통해 "아, 실천신학이 신학의 꽃이구나. 여기서 꽃 피우지 않으면 신학은 죽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경신학은 모든 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연구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해석학, 원전 연구, 구약 역사와 배경, 고고학 등등. 특히 히브리어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많은 셈족 언어(우가리트어, 아람어, 아카디아어 등)를 연구해야 합니다. 많은 학위과정은 언어를 공부하고 고대 문헌을 읽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있어 수많은 학설만 난무할 뿐 정답은 없습니다. 공부할수록 의문이 많아지고 신앙도 바래지요. 그러다보니 이걸 아니다 싶었고 목회하면서 신학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김승욱 : 그러니까 성장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강남 5개 교회가 급성장할 때 대교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되면서 대교회에 대한 비판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사람들 사이에 묻혀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더 많은 신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때문이라기보다 교인들이 관객처럼 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의원 : 저는 대교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대교회의 목회 철학이 문제입니다. 찬양, 어린이 학교, 설교 등이 프로그램화되면서 교인들은 좀 더 나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좇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는 구경하는 소비자가 되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소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인은 목회자의 동역자입니다. 레위기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거두어 단에 뿌리고 각 뜯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이지만,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자의 몫입니다. 곧 제사자는 제사장의 동역자였습니다. 현대 교회에 영적 소평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소비자와 구경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천명 규모의 교회에서 백 명만 움직여도 교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나머지 9백 명은 전부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교회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Editor's Comment

**고대 근동어를 전공하였지만
실천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사건(2)**

다른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담임하던 교회의 교인이 모범으로 보여준 선교사역입니다. 여신도 한 분이 중국 연길로 들어가서 장애자들을 위해 사역하며 그곳의 젊은 목회자들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저도 중국의 신학교 교수들을 비밀리에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운 겨울 새벽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불일을 보러 나갔는데 어디선가 웅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른 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그 추운 날씨에 중국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가마니를 뒤집어쓰고 교회 담벼락에 앉아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또 교회건축에 드릴 헌금이 없어 벽돌 두 장을 들고 4km를 걸어오신 할머니들, 반지 빼고 머리 깎고 치마를 벗어 내놓는 그들의 열정 앞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조부모님의 열정과 부모님의 헌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중국을 섬기면서 여러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현장과 공존해야 합니다. 자신이 양육하는 영적 자녀가 있을 때 신학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신학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신학 속에 가둬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신학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서 개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들의 연합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연합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 교회는 여러 가족 단위의 집합체였고,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셀 혹은 목장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 명씩 천 개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한 명이 하나로 모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두가 동역자로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모이면 일부만 일하지만, 열 명이면 모두가 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인들을 키워서 그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소서 4장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도를 구비시키면”(개정, 온전케 하여) 그들이 온갖 봉사의 일을 담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김승욱 : 대교회들도 구역, 셀, 순, 다락방, 목장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교회들은 서로를 잘 모른다고 해서 강권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주고 섞어주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네요.

김의원 :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지요. 생명체는 성장하면서 분열됩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당을 마련해 놓고 찾아오는 교인들을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정을 하나의 셀로 만들어 아들 친구가 놀러 왔다가 구성원이 되고 뒤이어 그 식구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계속해서 구성원이 늘어나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 분리하고 새로운 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체처럼 분열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감성 중심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리더는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자기의 고충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리더가 먼저 자신의 약점과 실수들, 넘어진 것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리더가 자신을 노출하는 만큼 구성원들도 자신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부분문제, 자녀양육, 물질문제 등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구성원들은 진흙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갑니다. 이렇게 자라난 그룹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처럼 분리됩니다. 세계관도 이런 식의 교제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욱 : 초반에 은퇴 이후 준비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김의원 : 하나는 한미문화협회라고 외교부 통상부 산하의 법인입니다. 설립취지는 미국 워싱턴 주 신호법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1.5세대와 2세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국인 입양아 학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이 단체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디아스포라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대학생들을 미국 워싱턴 주 의회와 시애틀 주변의 시정부에 인턴으로 보내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였는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아태아 대학원 (ATEA/AIS)으로 전 세계를 교구 삼는 사역입니다. 아태아는 선교지의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훈련하고, 복음과 더불어 땀도 주는 기술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도처에 초·중·고교를 세워 후대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현재 몇 개 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매우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기독교 황금시대를 이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최근 소수이지만 여기저기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교회가 제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소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욱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